

# “도전하는 광주시향... 다양한 레퍼토리로 스펙트럼 넓힐 것”



광주시향 제14대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병욱 씨가 14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취임 기념 연주회 'Unison'을 펼친다. <광주시향 제공>

“5월이 되면 브루크너 ‘미완성 교향곡 9번’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광주민중향정의 가치를 부장하는 이들로 인해 온전히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5·18과 작품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2025년은 광주시향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레퍼토리에 도전하는 해로, 내년은 우리만의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시향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으로 이병욱(50) 전 인천시향 예술감독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22일까지 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지휘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전문연주자 과정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 지휘자는 귀국 후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18년부터는 인천시향에서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6년간 재직하며 이름을 각인시켰다.

지난 10일 광주시향 예술감독실에서 만난 이 신임 지휘자는 “일 년여 전 광주시향과 정기연주회 ‘No.2’에서 합을 맞췄지만 이렇게 지휘봉까지 잡게 되리라 상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취임 전 광주시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자 그는 “발전 속도가 빨라 주목하고 있던 단체”라며 “특히 홍석원 전임 지휘자가 펼쳤던 다양한

협연이 대중적 관심에도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펼쳤던 공연은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어 “다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했을 때 광주시향 자체가 어떻게 연상될지도 상상해 봐야 한다”면서 “시향이 대중에게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로 더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해동안 광주시향은 해설을 가미한 ‘오티움 콘서트’ 등으로 클래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왔는데, 콘서트가 계속될지 물었다.

그는 “1~2년에 한 번은 오티움에 출연해 해설, 지휘를 맡아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며 “인천시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서 만나기 어렵던 지휘자를 객원으로 초대하려는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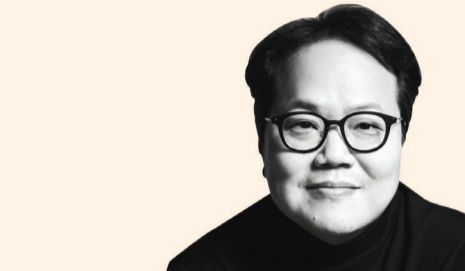
이 신임지휘자는 예술감독 취임을 기념하는 연주회 ‘Unison’도 앞두고 있다. 14일(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진행하며 차이콥스키, 하차투리안, 스트라빈스키 곡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그가 ‘2024 한국의 브루크너 상’을 수상했지만 취임 레퍼토리에 브루크너를 제외한 까닭은 음악적 다양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여러 색

광주시향 신임 예술감독 이병욱

인천시향 예술감독 6년 역임  
2024 한국 브루크너 상 수상

14일 취임연주회 ‘Unison’  
5월 ‘브루크너 교향곡 9번’



깔의 곡을 들려주고 오는 5월 ‘프라트레스’, ‘브루크너 9번’ 등을 시향 선율에 오롯이(협연 없이) 담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홀스트의 ‘행성’이나 광주시향이 잘 한다고 알려진 쇼스타코비치 ‘레닌그라드 7번’ 같

은 작품도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뷔페’처럼 차려두고, 관객들이 골라 즐길 수 있도록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는 20세기 작곡가 홀스트 등 규모가 큰 현대 작품을 언급했다.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 OENM과 TIMF 수석 지휘자로 활동해온 만큼, 앞으로 고전 음악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이 지휘자는 자신이 현대음악에도 특장점이 있음에도 “우선 귀에 거슬리지 않고 편안한 음악을 전하는 데 진력하고 싶다”고 한다. 미니멀리즘(병렬주의)이나 아토날리티(무조성) 등 색채가 강한 현대적 요소와 선법을 일단 밀어 두고 ‘기본’과 ‘조화’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이어 “전임자가 호연을 펼쳐온 만큼 부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묵묵히 제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다”며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오케스트라와 ‘하나의 유기체’로 융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먼 훗날 돌아볼 때 “이병욱도 관창은 지휘자였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그의 각오다.

/글·사진·취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민족시인 김남주 제31주기 추모식

내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족시인 김남주(1946~1994) 31주기 추모식이 오는 15일 오전 11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다.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는 김남주 시인 31주기 추모식을 오는 15일 개최하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추모제로 열렸으나 올해부터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추모식으로 전환해 참배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은 “가족들의 뜻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추모식으로 바꿔 고인의 뜻을 기리게 됐다”며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려 김남주 시인의 울골은 정신과 민중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모식은 박시영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추모사, 심진숙 시인의 추모사,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의 보고, 유가족 인사, 헌화로 진행된다.

한편 해남 출신의 김남주 시인은 70~80년대 유신 정권과 독재정권 탄압에 맞서 싸운 ‘전사시인’이었다. 해남중을 졸업하고 광주제일고에 입학한 그는 확고한 입시 교육에 반발, 자퇴를 하고 검정고사로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한다. 19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진혼가’ 등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농민운동에도 나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 김남주 시인

## ‘컬트 영화의 제왕’ 데이빗 린치 수작, 광주에서 만난다

지난달 작고 ‘특별 상영회’ 12~18일 CGV광주상무점

지난달 세상을 떠난 (故)데이빗 린치 감독은 생전 ‘컬트 영화의 제왕’으로 불렸다. 1977년 첫 장편 ‘엘리저 헤드’로 데뷔했으며 1980년 ‘엘리펀트 맨’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8개 부문 후보로 노미네이트됐다. 이후 1984년 SF소설 ‘들펀’을 영화화했고 ‘광란의 사랑’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 이후 드라마로 영역을 넓혀 ‘트윈 픽스’를 만들어 골든글로브 TV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최근까지도 그는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통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BBC는 이 작품에 대해 ‘21세기 위대한 영화’ 1위로 선정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CGV 광주상무점이 ‘멀홀랜드 드라이브’ 재개봉 및 특별 상영회를 12~18일 진행한다. 13일 오후 2시 5분, 14일 낮 12시 15분을 비롯해 15일(오후 6시 15분), 16일(오후 9시 45분), 17일(오후 4시 10분) 등 상영할 예정이다.

화려한 꿈을 안고 할리우드에 입성한 배우 지망생 베티(나오미 왓츠 분). 이모의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한 베티는 집을 둘러보던 중 괴한 리타(로라 해링)를 마주한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리타를 보고 측은지심이 베티는, 유명 감독과의 만남 등을 재쳐두고 그녀를 돕기 위해

기억의 파편을 찾아 나서는 내용.

칸 영화제를 비롯해 작품은 27회 세자르영화제 외국어영화상, 14회 시카고 비평가협회상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27회 LA비평가협회상 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66회 뉴욕 비평가협회상(작품상), 36회 전미 비평가협회상(작품상, 여우주연상) 등을 석권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상영과 함께 ‘멀홀랜드 드라이브’ 오리진 각본집(A5·영문)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대표소에서 영화 유료관람 당일 티켓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CGV 홈페이지 및 앱에서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멀홀랜드 드라이브’

## ‘출니? 이럴 땐 시를 쓰는 거야’

시인 문병란의 집, 14일까지 ‘어린이 시인학교’

추운 겨울이지만 ‘미래의 한강 작가’를 꿈꾸는 동심의 열기가 후끈하다.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14일까지 열리는 ‘어린이 시인학교’는 동심을 시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시로 추위를 이겨내며 미래의 한강과 같은 문학을 꿈꾸고 있다.

동구 인문거점 시설 가운데 한 곳인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운영하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행사는 동구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주관했다.

올해 주제는 ‘출니? 이럴 땐 시를 쓰는 거야’이며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은 박노식 시인이

맡았다. ‘어린이 시인 학교’는 11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 회 주제와 제목을 달리해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떠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에 전담강사로 초빙된 동시 시인은 전형정 시인과 문봄 시인으로 두 시인은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독서한 체험을 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지도를 했다.

두 시인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낀 감성과 경험을 글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며 “노벨상을 수상한 광주의 선배 ‘한강’의 뒤를 이을 훌륭한 문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14일까지 진행중인 ‘어린이 시인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노식 시인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익숙하다”며 “아이들이 동심의 나라를 활짝 펴서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을 많이 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